

성인여성의 화장색에 관한 분석

-메이크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보현 · 구자명*

대원과학대학 · 한성대학교

A Study of Make up Color Analysis of Adult Women

- Focusing on Make up Product -

Bo-Hyun Han · Ja-Myung Kuh*

Dept. of Fashion Coordination, Daewon Science College

· Division of Fashion Design & Business, Hansung University*

(2003. 9. 7 접수)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build the foundation of systematic application of color in cosmetology by analyzing color attributes in women's makeup presentation. The result were as follows. 1. The most popular color series in make up were R then RP and YR. The most popular color tone is 'd' and 'lt' . 2. Colors in make up according to age was as follows. For eye shadow, people aged 18 to 24 used 'lt' tone of the R color series ; people aged 25 to 34 used 'lt' , 's' , 'sf' tone of the R color series, 'lt' tone of the PB color series, 'lt' tone of the YR color series ; people over 35 'g' tone of the YR color series, 'sf' tone of the P color series. For lipstick, people aged 18 to 24 used 'd' tone of the R color series; people aged 25 to 34 used 'd' , 'sf' tone of the R color series; people over 35 used 'd' tone of the R color series. For lip-gloss, people aged 18 to 24 used 'v' , 'lt' , 'b' , 's' tone of the R color series; people aged 25 to 34 used 's' 'd' 'dp' 'sf' tone of the R color series; people over 35 used 'b' tone of the R color series. 3. Make up colors according to marital status was as follows. For eye shadow, while married interviewees used 's' , 'dk' tone of the R color series, single interviewees used 'lt' , 'sf' tone of the R color series. For lipstick, while married interviewees used 'd' , 'g' tone of the R color series, single interviewees preferred to use madder 'd' , 'sf' tone of the

R color series. For lip-gloss, while married interviewees used 'd' tone of the R color series, single interviewees used 'b' tone of the R color series the most.

Key words: color(컬러), tone(톤), make up(메이크업)

*Corresponding author : Ja-Myung Kuh

E-mail : suehan317@hanmail.net

I. 서론

1. 연구 목적

최근 들어 감성추구 위주의 경향에 따라 개성적인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색채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심은 색채 화장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진다. 화장은 얼굴이라는 형태에 색채를 가미하여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행위로 주로 눈과 입술, 볼에 색채를 적용하여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눈과 입술의 화장은 매력적인 인상을 만드는 중심이며 색채 화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 메이크업과 색채에 대한 연구는 시대별 메이크업 제품의 활용색채특성을 분석하거나¹⁾ 우리나라 여성의 화장색 선호도²⁾와 립스틱색 선택과 심리적 성격특성을 분석한 연구³⁾가 있다. 그리고 유행색을 조사 분석한 연구⁴⁾와 피부색에 따른 색채메이크업효과에 대한 연구⁵⁾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메이크업의 색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왔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존의 유통된 제품색 위주의 연구분석과 선호도에 관한 조사로 이루어져있으며, 실제로 메이크업을 어떠한 색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 색조제품사용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색채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화장을 하는 연령층인 만 18세에서 49세의 성인여성이 실제로 사용하는 아이섀도, 립스틱, 립글로스의 메이크업의 색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화장품 관

련제품의 색채기획 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시장전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49세까지의 성인여성 151명을 대상으로 면접법을 실시하여 2003년 2월 조사 당시 아이섀도, 립스틱, 립글로스 제품의 실제 사용하는 색을 한국 유행색 산업 협회에서 제작한 Color System(COS)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8.0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수집한 색은 메이크업 제품과 소비자 특성인 연령, 결혼여부에 따른 메이크업의 색상(hue)과 색조(tone)의 색채특성을 분석하였다. 색상은 뮌셀(Munsell)색체계의 색상분류에 의한 10색상(hue)과 색조는 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PCCS)색체계에 의한 12색조(tone)로 분류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색의 특성

색은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물체에 반사, 투과, 흡수될 때 눈의 망막과 시신경이 자극되어 감각하는 현상에 의해 나타난다. 색은 물리, 생리적 영역으로서 사람에게 지각되어지며,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로 사람에게 심리적이고 사회학적인 반응에 의한 다양하고 주관적인 시각적 경험으로 이끈다. 빛으로 말하여지는 색은 가장 흥미 있는 시각적 요소로서, 물리적으로는 비교적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의 에너지전

달현상으로 진공상태에서는 물체를 인식할 수 없다. 색은 인간이 시각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 빛의 가시영역인 380nm~780nm의 파장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을 인지할 수 있다. 빛의 파장은 물체에 흡수되기도 하고 투과하기도 하며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 혹은 산란을 일으킨다. 또한 물체를 투과하면서 굴절현상을 일으켜 파의 진행방향을 바꾸기도 하며 파들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이 일어나 간섭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빛의 특성으로 인해 사람은 물체의 색을 느끼게 된다. 색채는 색이 인간에게 주는 감성적인 느낌으로 객관적인 측정을 통한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색을 감성적이며 예술적인 느낌으로 서술할 때 사용한다. 색채는 물리적인 에너지가 신경정보로 변환되어야 지각이 가능하며, 사람은 자신에게 적합한 생리적 특성으로 색을 인식한다. 빛이 신경정보로 전환되는 부분은 망막에 있는 광수용기로 간상체와 추상체가 있다. 간상체와 추상체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일을 하며 간상체는 추상체보다 빛에 민감하므로 어두운 곳에서 주로 기능한다. 추상체는 광량이 풍부한 경우에 활동하며 해상도가 뛰어나고 색채감각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색채는 대상물체에서 나오는 빛의 물리적 특성이 동일할지라도 우리의 경험이나 주위 환경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기도 한다. 색채의 정서적 경험은 색채를 지각하는데 있어 심리적인 영향을 주므로, 색채는 감각적인 부분으로써 추상적인 감정효과를 일으킨다. 색채의 심리적 효과는 색채를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색채에 의한 마음의 움직임이며 사람은 일련의 연상과정을 통해

색에 따른 고유하고 독특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색채의 심리적 기능은 문자나 픽토그램 등과 같은 표기 이상으로 직접 감각에 호소하므로 인종, 언어, 시대를 초월하여 전달하는 감각적 수단이 된다. 그러나 생활양식이나 문화적 배경, 지역과 풍토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며 애매하고 다양한 성질을 가지기도 한다⁶⁾. 따라서 색채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성과 환경 그리고 문화적 특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색을 정확하게 구별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구성요소로는 빛의 파장의 변화로 느껴지는 색상(hue)과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내는 명도(value), 색파장의 순수한 정도를 나타내는 채도(chroma)가 있다⁷⁾. 사람은 항상 어떤 색을 인식할 때, 색의 삼속성인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를 동시에 지각한다. 동일한 색이라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정보의 기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먼셀(Munsell)은 물체색의 3속성으로서 색상(hue), 명도(value), 채도(chroma)에 기준 하여 세로축에는 명도, 주위의 원주상에는 색상, 중심의 가로축에서 방사상으로 늘이는 축은 채도로 구성된 색체계를 확립하였다.

톤(tone)은 명도와 채도의 복합개념이며 동일한 색상에서의 명암, 강약, 농담 등의 차이를 말한다. 모든 색은 밝기가 변하면 색의 순수함도 동시에 변한다. PCCS에서는 색의 상태 차이를 각 색상마다 해맑은(v), 밝은(b), 강한(s), 짙은(dp), 연한(lt), 부드러운(sf), 칙칙한(d), 어두운(dk), 옅은(p), 밝은 회색면(ltg), 회색면(g), 어두운

회색면(dkg)의 12톤으로 분류 시켰으며, 톤의 색공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색상이 다르더라도 톤이 정해져 있으면 일정한 이미지를 정확히 전달하므로⁸⁾ 톤은 효과적인 색채의 표현에 유용하다. 톤은 색채의 성격을 바꾸므로 비비드톤(vivid tone)의 선명하고 강한 느낌의 빨강에 명도를 높이고 채도를 낮추어서 연하게 만들면 연약한 느낌의 분홍이 된다. 즉 같은 색상을 지닌 색이라도 톤(tone)의 변화에 따라 하나의 색상은 여러 가지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색은 물리 생리적 영역으로 색상, 명도, 채도로 지각되는 시각적 요소이며, 색채는 색에 대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색상은 빛의 파장의 길이에 따라 구별되는 색의 종류이다. 색채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효과는 매우 중요한 감성적 요소로 인간의 개인적 또는 공통적인 경험에 의해 습득된다. 색채의 효과는 형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이미지를 약화시키거나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색채에 대한 느낌은 색상의 차이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톤의 차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메이크업과 색

색은 우리가 생활하고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촉매 역할을 하며, 우리가 하나의 물체를 다른 물체와 구별하는데 있어서 빠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모든 시각적인 표현에는 색채가 관여되어 있으며⁹⁾ 이미지형성에 있어서도 색의 중요성은 첫인상 형성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외모에서 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8%정도로¹⁰⁾ 중요하다. 자신을 표현하고자하는 욕구와 관심은 메이크업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며, 시각적인 표현인 메이크업에서 색이 주는 감정적이며 감각적인 효과는 색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각 개인의 감성적 표현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다. 메이크업에서의 색은 색조화장인 아이섀도색, 아이라이너색, 아이브로우색, 마스크라색, 볼터치색, 립스틱색 등에서 느낄 수 있으며, 선택된 화장색에 따라서 매력적인 인상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연희¹¹⁾는 색채화장의 트렌드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연구하기 위하여 화장을 트렌드별 색채분위기에 따라 내추럴(natural), 로맨틱(romantic), 고저스(gorgeous), 업 투 데이트(up to date), 클래식(classic), 베이직(basic)으로 나누어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특히 부분색채화장을 하지 않은 베이직은 색시하지 않은, 평범한, 보수적인, 점잖은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색채화장에 따라 얼굴이미지가 다르게 평가되므로 메이크업에서 색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희선¹²⁾은 1972년부터 2001년까지의 색채화장품의 색채특성을 파악하여 정리하였는데 그 결과 메이크업 전체 색채특성은 색상분포가 R(39.2%), YR(25.8%), RP(1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조분포는 d(14.2%), lt(14.0%)순으로 중채도, 중·고명도의 색조가 많이 나타났다. 립스틱에서는 R색상의 s,d색조가 많이 나타났고, 아이섀도는 YR색상의 sf, lt, g색조로 살구색, 베이지색, 옅은 갈색이 주로 사용되었

다. 전체적인 메이크업의 시대별 색상은 R, YR, RP색상이 전반적으로 가장 많았고, 70년대는 다른 시대에 비해 B, PB, GY색상이 많이 나타났고 80년대에는 R색상이, 2000, 2001년에는 BG색상이 많이 나타났다. 색조는 70, 80년대 모두 sf, lt, s, d색조의 순서로 고채도, 중·고명도 중심으로 나타났고 dk, dkg의 어둡고 탁한 색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90년대는 g, sf, d색조의 순서로 나타나 회색편 수수한 색조가 많았다. 아이섀도는 70년대는 YR색상의 p색조, GY색상의 sf색조 B색상의 lt색조로 연한 산호색, 베이지색, 연두색, 연한하늘

색이 80년대는 YR색상의 lt색조, 90년대는 YR색상의 sf, g색조로 어두운 오렌지색과 갈색이 나타났다. 립스틱은 70년대는 R색상의 s색조로 선명한 빨간색, 80년대 90년대는 R색상의 d, g색조로 벽돌색, 회색편 빨간색이 나타나 메이크업에서 R, YR, RP색상의 중채도, 중·고명도의 색조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2년 F/W 메이크업 유행색을 분석한 결과 내추럴(Natural)하면서 여성스런 느낌과 선명한 고채도의 컬러가 유행색으로 나타났다¹³⁾.

신수길, 황상민¹⁴⁾은 자기표현성이 약한 20대 여성집단은 주로 가벼운 톤을, 자기

<표1> 메이크업과 색에 대한 선행논문 분석

연구자	내용	결과
신수길·황상민 (1998)	립스틱색 선택과 심리적 성격 특성을 분석	자기표현성이 약한 20대 여성집단은 가벼운 톤과 Red계열을 자기표현성이 강한 20대 여성집단은 선명하고 밝은 톤과 Purple계열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윤정 (1999)	우리나라 여성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색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 여성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색의 분포는 YR색상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류영미·이미령 (2000)	피부색에 따른 색채화장 효과에 대한 연구	여성들은 피부색에 따라 눈과 입술의 화장색을 결정
이연희(2001)	색채화장의 트렌드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연구	부분화장을 하지 않은 베이직(Basic)화장을 선택하지 않은 평범한 보수적인 이미지로 지각
김희선(2002)	1972년부터 2001년까지의 색채화장품의 색채특성을 파악 정리	색채 화장품의 색채 특성은 색상분포가 R(39.2%), YR(25.8%), RP(1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조분포는 d(14.2%), lt(14.0%)순으로 중채도, 중고명도의 색조가 많이 나타남
김호숙·강인애 (2003)	2002년 F/W 메이크업 유행색 분석	내추럴(Natural)하면서 여성스러운 느낌과 선명한 고채도 컬러가 유행색으로 나타남

표현성이 강한 20대 여성 집단은 선명하고 밝은 톤의 립스틱을 더 소유하며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약한 집단은 Red계열을, 강한 집단은 Purple계열의 립스틱 색을 바르고 싶어한다고 하여 립스틱 색에 대한 선택에서 심리적 성격특성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여성들은 피부색에 따라 눈과 입술의 화장색을 결정하며, 아이새도컬러는 눈동자 색상이 검은색이나 어두운 갈색인 동양인의 경우 어떤 컬러나 어울리고, 립스틱 컬러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오렌지계열색상에서, 레드계열, 퍼플계열 색상으로 바뀌어 간다¹⁵⁾. 우리나라 여성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색의 분포는 YR색상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는 않으며, 화장색은 4YR~4.6YR의 색상과 명도 6.4~6.5, 채도는 2.6~3.9 사이에 주로 분포되었다¹⁶⁾.

이와 같이 색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이새도 색과 립스틱 색은 메이크업 이미지효과에 크게 영향을 주며 심리적 성격특성은 립스틱 색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전체적인 메이크업색채는 붉은 계열 색상의 중채도, 중·고명도의 색조가 많으며, 효과적인 메이크업색채를 위해 얼굴색에 적합한 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메이크업 색에 관한 조사는 면접법 방법으로 연구자가 아이새도, 립스틱, 립글로스의 색을 측정하였으며, 그 외에 연령, 거주지, 결혼여부 등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관

한 3문항은 설문지에 피험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49세까지의 성인여성 151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 2월 10일~28일에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장소는 색 측정이 가능한 공간이 있는 서울, 인천, 수원에 위치한 회사, 학원, 대학 등이었다. 자료수집방법은 한국 유행색산업협회에서 제작한 코스 시스템(COS system) 컬러칩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시감측색을 통해 조사당시 사용한 연구대상자의 아이새도, 립스틱, 립글로스 제품과 가장 유사한 색을 기입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육안 측정인 관계로 조명과 일광조건에 따른 색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측정조건을 정하였다. 컬러측정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서 측정하였으며, 채광조건은 자연광으로 정하고 날이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은 제외시켰다. 아이새도색의 측정은 아이새도색의 분위기를 강조하여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효과를 주는 포인트 색으로 측정을 하였다. 수집된 색채는 총 279개였으며 수집된 메이크업의 색상과 색조를 연령, 결혼여부에 따라 특성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색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색상은 먼셀(Munsell)색체계에 의하여 빨강(R, red), 주황(YR, yellow red), 노랑(Y, yellow), 연두(GY, green yellow), 녹색(G, green), 청록(BG, blue green), 파랑(B, blue), 남색(PB, purple blue), 보라(P, purple), 자주(RP, red purple)의 10색상으로 분류하였다. 색조는 PCCS색체계의 톤(tone)분류에 의하여 옅은(p, pail), 밝은 회

색 띰(ltg, light grayish), 회색 띰(g, grayish), 어두운 회색 띰(dkg, dark grayish), 연한(lt, light), 부드러운(sf, soft), 칙칙한(d, dull), 어두운(dk, dark), 밝은(b, bright), 강한(s, strong), 짙은(dp, deep), 해맑은(v, vivid)의 12색조 및 무채색 5단계로 나누어 흰색(W, White), 회색(Gy, Gray), 어두운 회색(dkGy, dark Gray), 밝은 회색(ltGy, light Gray), 검정색(Bk, Black)으로 분류하였다. 유채색과 무채색의 분류기준은 채도 0.5를 기준으로 하여 0.5이상의 채도를 가진 색채는 유채색으로, 0.5이하의 채도를 가진 색채는 무채색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유채색의 색상과 색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사용된 색명은 색상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KS 산업규격의 기본색 이름과 KS 산업규격에 준하여 제작한 관용색, 계통색 이름에¹⁷⁾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추출된 색과 가장 유사한 관용색명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을 하였으며, 유사한 관용색명에 색의 명도와 채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관용색명의 경우 기본색명과 계통색명으로 적용하였으며 색명은 다음과 같다. R색상의 p색조는 연한 핑크, lt색조는 산호색, b색조는 로즈색, v색조는 빨강, s색조는 스트로베리, dp색조는 와인레드, dk색조는 어두운 빨강, g색조는 적갈색, sf색조는 진달래색, d색조는 연지색, YR색상의 lt색조는 연한 주황, g색조는 밤색, sf색조는 어두운 주황, PB색상의 p색조는 연한 파랑, lt색조는 진한 하늘색, P색상의 sf색조는 진한 라일락, RP색상의 b색조는 연한

자주색이라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전체 151명이었으며 10대 11명(7.3%), 20대 83명(55.0%), 30대 47명(31.1%), 40대 10명(6.6%)으로 20대가 55.0%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을 가진 여성이 90명(59.6%), 직업이 없는 여성이 36명(23.8%), 대학생이 25명(16.6%), 기혼이 46명(30.5%), 미혼이 105명(69.5%)이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메이크업 제품의 색상과 색조 분석

수집된 색채는 총 279개였으며, 유채색은 266개(95.3%), 무채색은 13개(4.7%)였다. 무채색은 W가 12개, Gy 1개였으며, dkGy, ltGy와 B은 없었다. 메이크업의 전체 색상분포를 살펴보면 R(63.5%), RP(11.3%), YR(8.6%)순으로 나타났다. R색상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5R(19.2%), 2.5R(17.7%), 7.5R(17.3%)로 R색상계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메이크업의 색조경향은 d(19.5%), lt(15.8%)의 색조가 많이 나타났다.

1) 아이섀도의 색상과 색조

아이섀도 색상은 R(32.3%), YR(15.2%), P(14.1%)순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YR(32.6%), R(12.9%), Y(12.6%)순의 메이크업제품색채¹⁸⁾ 경향에 비해 R색상의 비중이 크며 그 외 P계열색상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섀도의 R색상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RP색상에 가까운 2.5R 색상이 많이 나타났다. 다른 아이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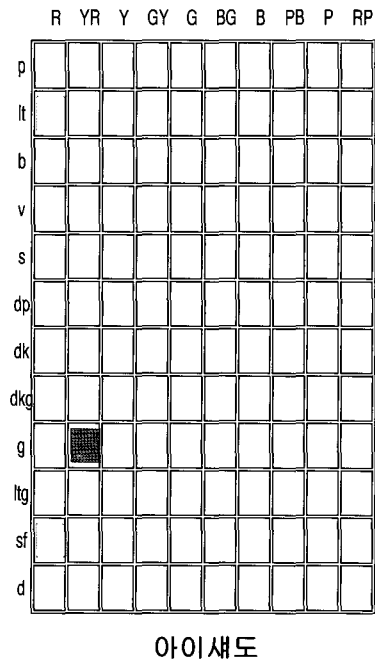
비해 GY(3.0%), G(4.0%), B(4.0%), BG(3.0%), PB(10.1%) 등의 색상이 사용되어 비교적 다양한 색상영역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무채색의 흰색과 회색도 사용되었다. 아이새도 색조는 lt(23.2%), p(16.2%), g(11.1%), sf(11.1%)등의 순으로 중·저채도 중심으로 밝고 부드러운 색조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채도가 높은 선명한 v와 저명도 저채도인 dkg색조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아이새도의 색상과 색조는 R색상의 lt, sf 색조에 가장 많이 나타나 산호색과 진달래색이 많이 사용되었고, YR색상에서는 g색조에 가장 많이 나타나 밤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아이새도색상 중 YR색상의 sf, lt, g색조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연한 살구색과 베이지색, 갈색 등의 순으로 나타난¹⁹⁾ 제품 색채 경향보다 실제로 사용하는 색채는 고명도의 R계열색상이 더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듯 만 듯한 투명 화장의 경향으로 자연스러운 색상과 색조가 사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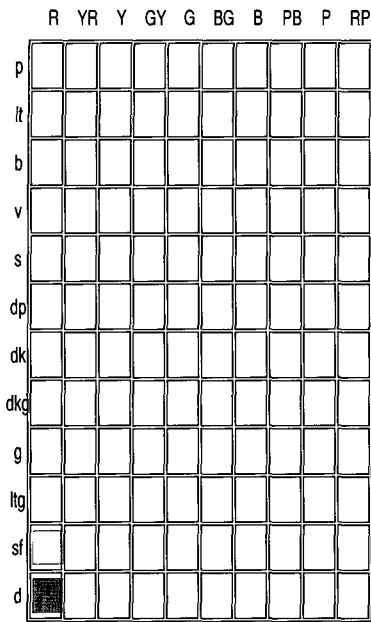
2) 립스틱의 색상과 색조

립스틱색상은 R(92.2%), RP(5.2%)로 R색상이 90%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색상임을 알 수 있다. 립스틱의 R색상을 세분하여 보면 YR색상에 가까운 7.5R이 많았다. 립스틱색조는 d(48.1%), sf(15.6%), s(9.1%)로 나타났으며, 립스틱의 색상과 색조는 R색상의 d색조에 집중되어 나타나 중채도 증명도의 연지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sf 색조로 진달래색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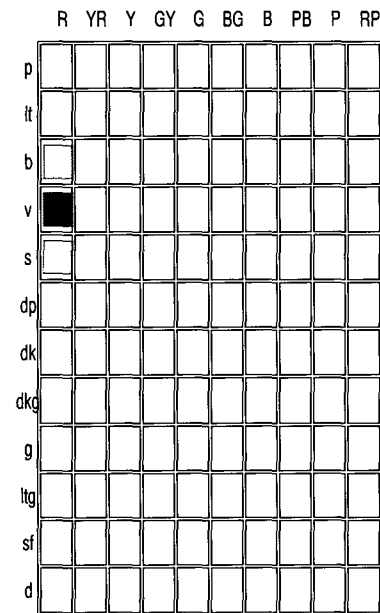
3) 립글로스의 색상과 색조

립글로스 색상은 R(73.0%), RP(17.8%)의 순으로 나타나 립스틱에 비해 R색상의 비중이 줄고 RP계열색상이 조금 더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립글로스의 R색상을 세분하여 보면 2.5R과 5R이 많아서 립스틱의 색상보다 자주빛이 나는 분홍이나 빨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립글로스 색조는 b(18.9%), lt(16.7%), s(16.7%)의 순으로 나타나 고명도·중채도, 증명도·고채도의 색조가 립글로스의 투명한 재질감과 더불어 윤기있는 입술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색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립글로스의 색상과 색조는 R색상의 s, b, v 색조의 분포가 가장 많아서 스트로베리, 로즈, 빨강으로 고채도의 선명한 빨간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아이새도, 립스틱, 립글로스의 주요 활용색은 <그림 1> 과 같다.





립스틱



립글로스

<그림 1> 아이섀도, 립스틱, 립글로스의 주요 활용색

2. 연령별 메이크업 제품의 색상과 색조 분석

연령에 따라 메이크업의 색채 분석을 위해 연령집단을 18세~24세 집단, 25세~34세 집단, 35세 이후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각 연령별로 수집된 색채는 18세~24세 집단에서 100개(35.8%), 25세~34세 집단에서 131개(47%), 35세 이후 집단에서 48개(17.2%)였다.

1) 연령별 아이섀도의 색상과 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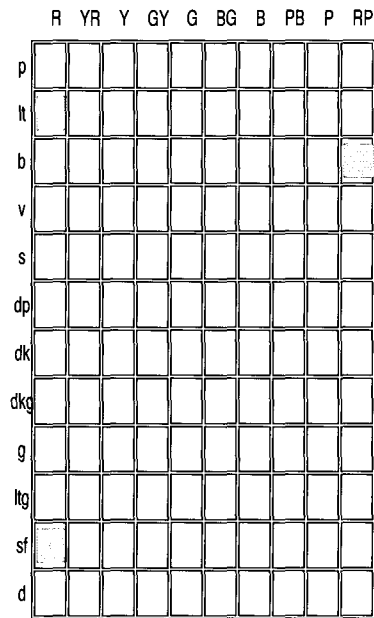
아이섀도 색상은 18세~24세의 연령집단에서 R(39.4%), RP(18.2%), P(12.1%), Y(9.1%)의 순서로 나타나 R계열과 RP계열의 색상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P와 Y계열색상도 사용하였다. 색조는 lt(24.2%), p(24.2%), sf(12.1%), g(12.1%), b(12.1%)의 순서로 나타나 고명도, 저채도의 가벼운 파스텔 색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중명도·중채도의 부드러운 색조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명도 저채도의 dk, dkg 색조와 채도가 높은 v, dp색조는 사용하지 않았다. 아이섀도의 색상과 색조는 R색상의 lt색조에 가장 많이 나타나 산호색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p, sf색조로 부드러운 저채도의 분홍색을 사용하며, RP색상에서 b색조로 연한 자주색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세~34세 연령집단의 색상은 R(32.0%), YR(18.0%), PB(14.0%)의 순서로 나타나 R계열, YR계열, PB계열색상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연령에 비해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였다. 색조는 lt(26.0%), p(14.0%), dk(12.0%), sf(8.0%), g(8.0%), b(8.0%), d(8.0%), s(8.0%)의 순서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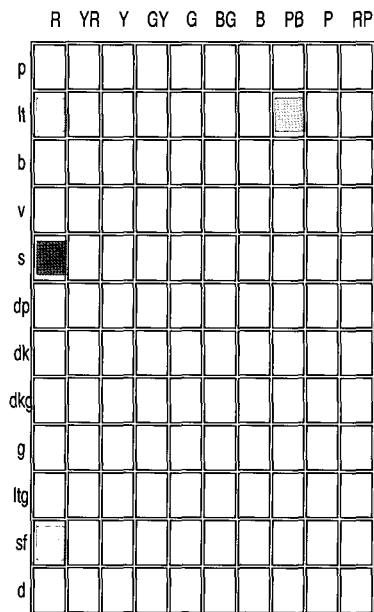
나 고명도, 저채도의 밝은 색조를 많이 사용하며 저명도 저채도의 차분한 dk색조와 증명도의 부드러운 sf색조 등도 사용하였고, 다른 연령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고채도의 v색조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색조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색상과 색조는 R색상의 lt, s, sf 색조의 산호색, 스트로베리색, 진달래색, PB색상의 lt색조로 진한 하늘색, YR색상의 lt색조인 연한 주황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35세 이후 집단의 색상은 P(31.3%) YR(25.0%), R(18.8%)의 순서로 나타나 P 계열과 YR계열, R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였다. 색조는 sf(18.8%), g(18.8%) lt(12.5%), dp(12.5%)의 순서로 나타나 lt의 밝은 색조보다 증명도, 중·저채도의 색조가 주로 사용되고, 다른 연령층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고채도, 저명도의 깊은 색조도 사용되었다. 색상과 색조는 YR색상의 g색조로 밤색과 P색상의 sf색조로 진한 라일락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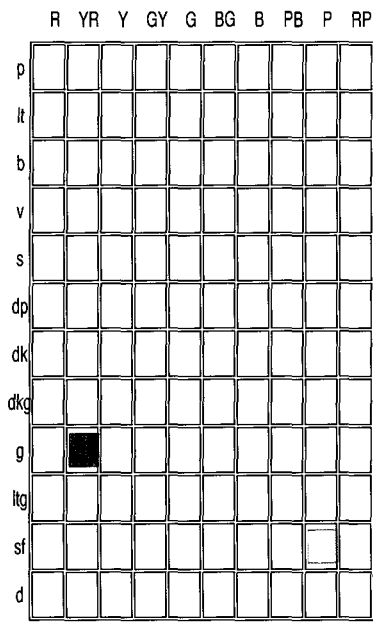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연령별 아이세도 주요 활용색은 <그림 2> 와 같다.



18~24세



25세~34세



35세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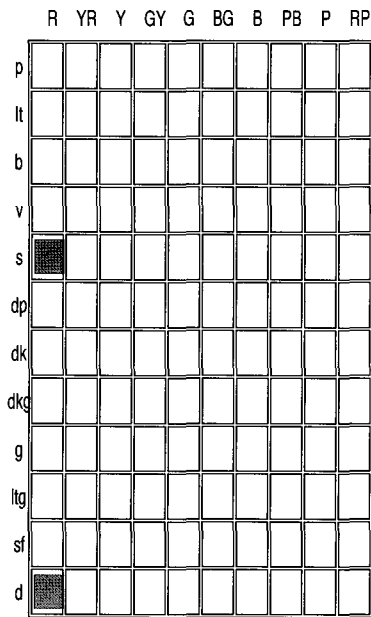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 아이새도 주요 활용색

2) 연령별 립스틱의 색상과 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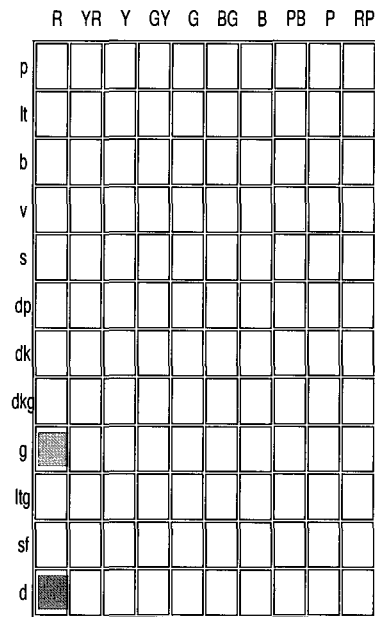
립스틱의 색상은 18세~24세 연령집단에서 R(85.0%), RP(15.0%)의 두가지 색상만 나타났다. 색조는 d(50.0%), s(20.0%) lt(10.0%), sf(10.0%)의 순서로 나타나 증명도, 중채도의 색조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고명도의 색조도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연령층과 다르게 저명도, 고채도인 dp의 색조와 저채도의 g색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과 색조는 R색상의 d색조로 연지색의 분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s색조로 선명한 스트로베리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25세~34세의 연령집단의 색상은 R(91.7%), YR(2.8%), P(2.8%), RP(2.8%)의 분포로 나타나 R계열색상의 빨강색이 주로 쓰이지만 다른 연령에 비해 YR계열, P계열,

RP계열색상 등의 비교적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다. 색조는 d(38.9%), sf(22.2%), dp(13.9%), s(8.3%), g(8.3%)의 순서로 나타나 증명도, 중채도의 색조가 주로 사용되나, 고채도와 저채도의 색조도 사용되어 비교적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색조의 분포가 고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색상과 색조는 R색상의 d 색조로 연지색 분포가 가장 많았으며, sf색조의 진달래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이후 연령집단의 색상은 전부 R(100%)로 나타나 R계열색상의 빨간색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얼굴에 혈색을 부여 할 수 있는 R계열의 색상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색조는 d(61.9%), g(14.3%), sf(9.5%), v(9.5%)의 순서로 증명도 중채도인 d색조의 분포가 매우 높으며, 다른 연령층에서 사용하지 않는 고채도의 v색조를 사용하고 저채도의 차분한 g색조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과 색조는 R색상에서 d색조의 연지색의 분포가 월등히 많으며, g색조의 적갈색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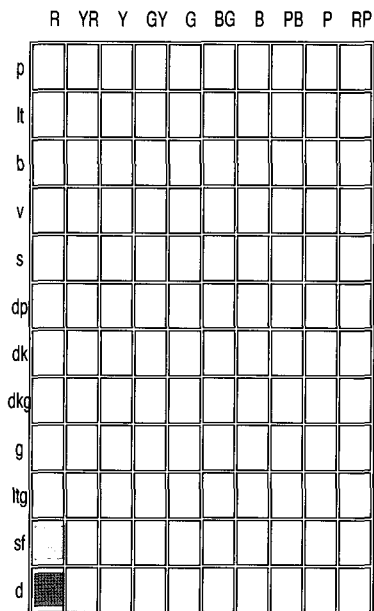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연령별 립스틱 주요 활용색은 <그림 3> 과 같다.



18~24세



35세 이후



25세~34세

<그림 3>연령별 립스틱 주요 활용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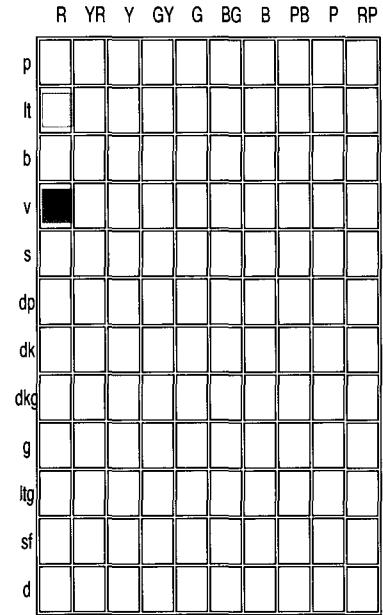
3) 연령별 립글로스의 색상과 색조

립글로스 색상은 18세~24세의 연령집단에서는 R(75.0%), RP(15.0%), YR(7.5%), P(2.5%)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립스틱과 동일하게 R계열과 RP계열의 색상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연령과는 다르게 P계열색상의 립글로스 색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아이새도에서 P계열의 색상을 사용하는 분포가 많은 것과 연관되어 아이새도와 동일한 색상으로 색채화장을 하고 있는 경향으로 보인다. 색조는 v(25.0%), lt(22.5%) b(15.0%), s(15.0%)의 순서로 나타나 고채도의 색조와 고명도의 밝은 색조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색상과 색조는 R색상에서 v색조의 선명한 빨간색, lt색조로 산호색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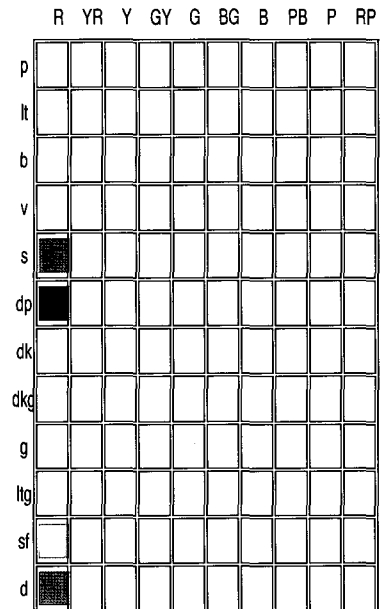
25세~34세 연령집단의 색상은 R(69.0%),

RP(21.4%) YR(9.5%)의 분포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R계열의 색상을 적게 사용하며, RP계열색상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색조는 s(19.0%), b(19.0%), lt(14.3%), sf(11.9%), d(11.9%)의 순서로 나타나 고채도의 색조와 고명도의 색조, 중채도의 색조 등 고르게 색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색상과 색조는 R색상에서 s, d의 색조로 스트로베리색, 연지색과 dp, sf 색조의 와인레드색, 진달래색을 사용하였다. 35세 이후 연령집단의 색상은 R(87.5%), RP(12.5%)의 분포로 나타나 R계열색상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외 RP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적게 사용하였다. 색조는 b(37.5%), v(12.5%), sf(12.5%), s(12.5%) dp(12.5%), p(12.5%)의 순서로 나타나 고채도, 고명도의 밝고 화사한 색이 큰 분포를 차지하였다. 색상과 색조는 R색상에서 b색조의 분포가 가장 많아서 로즈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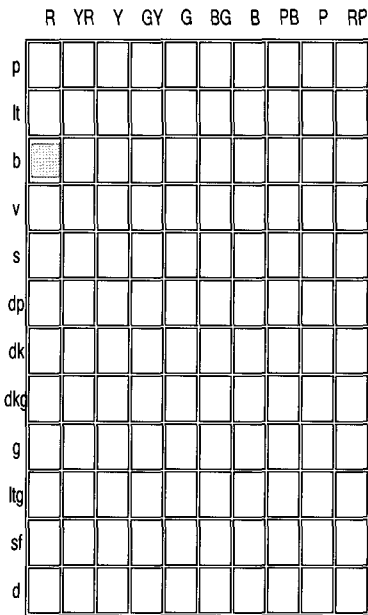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연령별 립글로스 주요 활용색은 <그림 4> 와 같다.



18세~24세



25세~34세



35세 이후

<그림 4> 연령별 립글로스 주요 활용색

3. 결혼여부별 메이크업 제품의 색상과 색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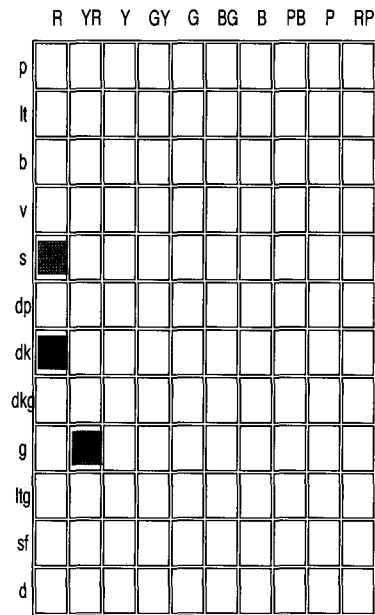
결혼 유무에 따라 메이크업의 색채 분석을 위해 기혼집단, 미혼집단으로 나누었으며 각 집단별로 수집된 색채는 기혼집단에서 91개 (32.6%), 미혼집단에서 188개(67.4%)였다.

1) 결혼여부별 아이새도의 색상과 색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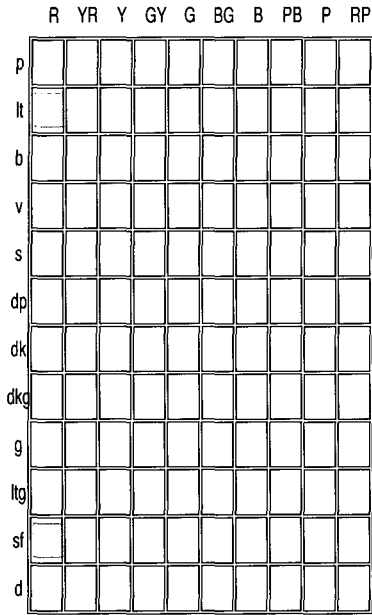
결혼 여부에 따른 아이새도 색상은 기혼집단에서는 R(28.6%), YR(22.9%), P(1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조는 lt(14.3%), b(11.4%), p(11.4%), s(11.4%), dk(11.4%)의 순이었다. 색상과 색조는 R색상의 s색조로 스트로베리색과 dk색조로 어두운 빨간색을 YR색상의 g색조로 밤색과 lt색조로 연한 주황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진한 R계열 색상과 YR계열색상을 사용하였다. 미혼집단

의 색상은 R(34.4%), P(15.6%), RP(14.1%)로 나타났으며, 색조는 lt(28.1%), p(18.8%), sf(14.1%)로 나타났다. 색상과 색조는 R색상의 lt색조로 산호색과 sf색조로 진달래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보다 산뜻한 붉은색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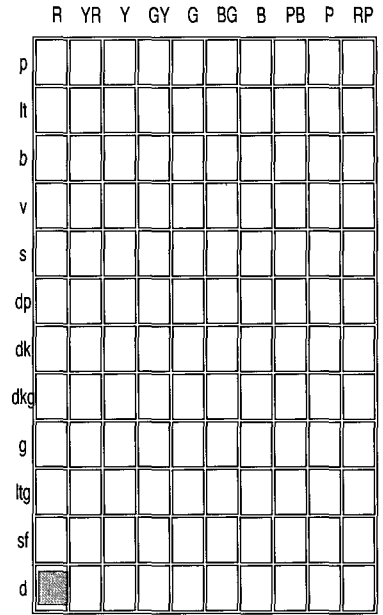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결혼여부별 아이새도의 주요 활용색은 <그림 5> 와 같다.



기혼집단



미혼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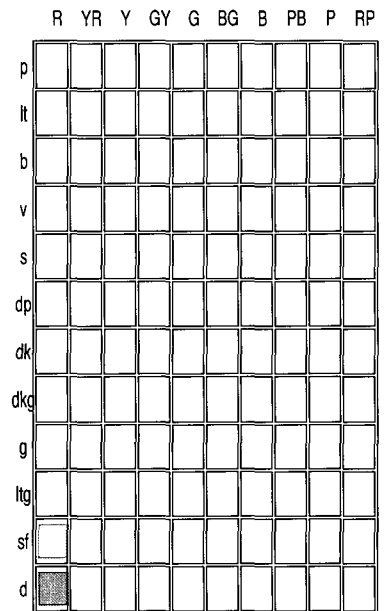
기혼집단

〈그림 5〉 결혼여부별 아이세도 주요 활용색

2) 결혼여부별 립스틱의 색상과 색조

립스틱의 색상은 기혼집단에서 R(93.3%)이 가장 많았으며, 색조는 d(60.0%)로 나타났다. 색상과 색조는 R색상의 d색조로 연지색을 사용하였다. 미혼집단의 색상도 R(91.5%)이 가장 많았으며, 색조는 d(40.4%), sf(17.0%)로 나타났다. 색상과 색조는 R색상의 d색조의 연지색과 sf색조의 진달래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혼여부별 립스틱 주요 활용색은 〈그림 6〉 과 같다.



미혼집단

〈그림 6〉 결혼여부별 립스틱 주요 활용색

3) 결혼여부별 립글로스의 색상과 색조

립글로스 색상은 기혼집단에서 R(69.6%), RP(17.4%), YR(13.0%)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립글로스의 색조는 s(26.1%), d(21.7%)였으며, 색상과 색조는 R색상의 d색조로 연지색을 사용하였다. 미혼 집단의 색상도 R(74.6%), RP(17.9%), YR(6.0%)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색조는 b(20.9%), lt(17.9%), v(16.4%)로 나타났다. 색상과 색조는 R색상의 b색조로 로즈색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혼여부별 립글로스 주요 활용색은 <그림 7> 과 같다.

	R	YR	Y	GY	G	BG	B	PB	P	RP
p										
lt										
b										
v										
s										
dp										
dk										
dkg										
g										
ltg										
sf										
d										

기혼집단

	R	YR	Y	GY	G	BG	B	PB	P	RP
p										
lt										
b										
v										
s										
dp										
dk										
dkg										
g										
ltg										
sf										
d										

미혼집단

<그림 7> 결혼여부별 립글로스 주요 활용색

이와 같이 기혼여성은 스트로베리, 어두운 빨강의 아이새도와 연지, 적갈색의 립스틱 연지색 립글로스로 여성스럽고 성숙해 보이는 화장을 하며, 미혼여성은 산호, 진달래색의 아이새도와 연지색, 진달래색 립스틱, 장미색 립글로스로 산뜻하고 귀여워 보이는 화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연령과 결혼여부를 고려해보면 18세~24세의 미혼여성은 산호색 아이새도와 장미색 립글로스로 자연스럽고 산뜻한 화장을, 25세~34세의 기혼여성은 스트로베리색 아이새도와 연지색 립스틱과 립글로스로 진한 R계열색상으로 화려한 이미지의 화장을 하며, 25세~34세의 미혼여성은 산호, 진달래색 아이새도와 연지색 립스틱으로 화사하면서 여성스러운 이미지

<표 2> 메이크업의 주요 활용색

()=%

		사용색상	사용색조	주요 활용색	
전 체	아이섀도	R(32.3), YR(15.2), P(14.1)	lt(23.2), p(16.2), g(11.1), sf(11.1)	산호색, 진달래색, 밤색	
	립 스틱	R(92.2), RP(5.2)	d(48.1), sf(15.6), s(9.1)	연지색, 진달래색	
	립글로즈	R(73.0), RP(17.8)	b(18.9), lt(16.7), s(16.7)	스트로베리, 로즈색, 빨간색	
연령별	아이섀도	18-24세	R(39.4), RP(18.2), P(12.1), Y(9.1)	lt(24.2), p(24.2)	산호색, 진달래색, 연한핑크, 연한자주색
		25-34세	R(32.0), YR(18.0), PB(14.0)	lt(26.0), p(14.0), dk(12.0)	산호색, 진달래색, 스트로베리, 연한주황, 진한하늘색
		35세이후	P(31.3), YR(25.0), R(18.8)	sf(18.8), g(18.8), lt(12.5), dp(12.5)	밤색, 진한라일락
	립 스틱	18-24세	R(85.0), RP(15.0)	d(50.0), s(20.0), lt(10.0), sf(10.0)	연지색, 스트로베리
		25-34세	R(91.7), YR(2.8), P(2.8), RP(2.8)	d(38.9), sf(22.2), dp(13.9)	연지색, 진달래색
		35세이후	R(100.0)	d(61.9), g(14.3), sf(9.5), v(9.5)	연지색, 적갈색
	립글로즈	18-24세	R(75.0), RP(15.0), YR(7.5), P(2.5)	v(25.0), lt(22.5), b(15.0), s(15.0)	산호색, 빨간색
		25-34세	R(69.0), RP(21.4), YR(9.5)	s(19.0), b(19.0), lt(14.3)	진달래색, 스트로베리, 연지색, 와인레드
		35세이후	R(87.5), RP(12.5)	b(37.5)	로즈색
컬 투 톤	아이섀도	기 톤	R(28.6), YR(22.9), P(11.4)	lt(14.3)	스트로베리, 어두운빨강, 연한주황, 밤색
		미 톤	R(34.4), P(15.6), RP(14.1)	lt(28.1), p(18.8), sf(14.1)	산호색, 진달래색
	립 스틱	기 톤	R(93.3)	d(60.0)	연지색
		미 톤	R(91.5)	d(40.4), sf(17.0)	연지색, 진달래색
	립글로즈	기 톤	R(69.6), RP(17.4), YR(13.0)	s(26.1), d(21.7)	연지색
		미 톤	R(74.6), RP(17.9), YR(6.0)	b(20.9), lt(17.9), v(16.4)	로즈색

로 화장을, 35세 이상의 기혼여성은 밤색 아이새도와 연지색 립스틱으로 차분한 이미지에 윤곽이 뚜렷해 보이는 화장을 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20대 초반의 미혼인 경우는 산뜻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추구하고 30대 이후의 기혼여성은 차분하고 성숙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장색의 사용은 연령, 결혼 등의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의 연령과 결혼여부에 따라 추구하는 이미지가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화장색은 아이새도, 립스틱, 립글로스 색상은 R색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 색의 다양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메이크업의 색상은 여성스러워 보이면서 얼굴에 혈색을 부여할 수 있는 R색상이 가장 중요한 색상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화장의 경향은 진하고 두꺼운 화장의 인위적인 표현보다 깨끗하고 맑은 피부표현과 연관 화장색의 사용으로 옅고 자연스러운 색채화장을 하여 최근 유행경향인 투명메이크업의 추세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여성은 색채화장 시 입술과 눈화장을 동시에 하지 않고 아이새도 색상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색채화장 방법을 습득하는 과정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V. 결 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용색채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메이크업의 실제 사

용 색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색채측정은 면접법 방법으로 2003년 2월에 실시하였으며 조사당일 사용한 색조제품의 색채를 COS 색표집을 이용한 시각측색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색채는 먼셀(Munsell) 색체계의 색상분류에 의한 10색상과 PCCS 색체계의 색조분류에 의한 12톤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49세까지의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총 151명이었으며 연령과 직업, 결혼여부에 따라 메이크업의 색상과 색조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이크업의 전체 색상분포는 R, RP, YR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색조분포는 d, lt가 많았다. 아이새도는 R색상의 lt, sf색조로 산호와 진달래색, YR색상의 g색조로 밤색을 사용하였으며, 립스틱은 R색상의 d색조로 연지색이 가장 많았고, 립글로스는 R색상의 s, b, v색조로 스트로베리, 로즈, 빨간색이 많았다.

둘째, 연령별 메이크업의 색상과 색조는 다음과 같다.

아이새도는 18세~24세 연령집단에서는 R색상의 lt색조로 산호색, 25세~34세의 연령집단에서는 R색상의 lt, s, sf색조로 산호색, 스트로베리, 진달래색, PB색상의 lt색조로 진한 하늘색, YR색상의 lt색조로 연한 주황색을 사용하였다. 35세 이후의 연령집단에서는 YR색상의 g색조로 밤색과 P색상의 sf색조로 진한 라일락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립스틱은 18세~24세 연령집단은 R색상의 d색조로 연지색, 25세~34세 연령집단은 R색상의 d, sf색조로 연지색과 진달래색을, 35세 이후 집단에서는 R색상의

d색조로 연지색이었으며, 모든 연령층이 R색상의 d색조가 가장 많았다. 립글로스는 18세~24세 연령집단은 R색상의 v, lt, b, s 색조로 빨간색과 산호색, 로즈색, 스트로베리색을 사용하였고, 25세~34세 연령집단은 R색상의 s, d, dp, sf색조로 스트로베리, 연지색, 와인레드, 진달래색을 사용하였다. 35세 이후의 연령집단에서는 R색상의 b색조로 로즈색이 많았다.

셋째, 결혼여부별 메이크업의 색상과 색조는 다음과 같다.

아이새도는 기혼집단에서는 R색상의 s, dk색조로 스트로베리색과 어두운 빨간색을, 미혼집단에서는 R색상의 lt, sf색조로 산호색과 진달래색을 사용하였다. 립스틱 색상은 기혼집단은 R색상의 d, g색조로 연지색과 적갈색을, 미혼집단은 R색상의 d, sf색조로 연지색과 진달래색이 많았으며, 두 집단 모두 R색상의 d색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립글로스 색상은 기혼집단에서는 R색상의 d색조로 연지색이, 미혼집단에서는 R색상의 b색조로 로즈색이 많았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일부지역의 여성들에 대해 국한되어 있으므로 좀 더 광범위한 연구의 범위가 필요하며, 시감 측정의 주관적 오차 및 측정 장소의 차이에 따른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사용하는 색채에 대한 분석에만 치중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직업별에 따른 화장색과 화장색의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와 성격 등의 심리적인 특성과 화장색의 관계 연구와 그 외에 지역,

계절, 얼굴색, 의상색에 따른 화장색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희선(2002). 색조제품의 유행색 데이터 관리를 위한 색채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2), pp. 107~110.
- 2) 우윤정(1999). 한국여성의 피부색, 얼굴색, 화장색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3~54.
- 3) 신수길, 황상민(1998). 감성이미지 기법과 평가방법이 적용된 색조화장품의 사용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11(1), pp. 37~44.
- 4) 김효숙, 강인애(2003). 테마별 이미지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7(1), pp. 72~83.
- 5) 류영미, 이미령(2000). 효과적인 메이크업을 위한 색채연구. 한국미용학회지, 6(1), pp. 67~97.
- 6) 이윤주(1999). 색채 이미지에 기반한 패션 색채 계획 도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25~26.
- 7) 박은신(2002). Color 2 You. 서울: 도도아카데미 컬러리스트 연구소, pp. 4~5.
- 8) 강근영 외(2001). 색채와 뷰티코디네이션. 서울: 고문사, p. 102.
- 9) 문은배(2002). 색채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국제, p. 45.
- 10) 이연희, 이운영(2002). 현대인의 이미지 메이킹. 서울: 청구문화사, p. 11.
- 11) 이연희(2001). 색채화장이 얼굴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08~112.
- 12) 김희선(2002). '앞의 책'. pp. 107~110.
- 13) 김효숙, 강인애(2003). '앞의 책'. pp. 72~83.
- 14) 신수길, 황상민(1998). '앞의 책'. pp. 37~

44.

15) 류영미, 이미령(2000). '앞의 책'. pp. 67~97.

16) 우윤정(1999). '앞의 책'. pp. 53~54.

17) 문은배(2002). '앞의 책'. pp. 201~209.

18) 김희선(2002). '앞의 책'. pp. 107~110.

19) '위의 책'. p. 108.